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권위 있는 가르침

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

Tag: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7:1-6)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달랐다. 그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다.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7:29)

현재 우리나라에 권위있는 가르침을 베푸는 자가 없으니 안타깝다. 국민들은 향방이 없다. 호수 위의 나뭇잎 같다. 윤석렬신드롬이 그 대표적인 예.

그 누가 통치한들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 다만 정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윤석렬검찰총장이 돋보일 뿐.

과거에 반기문이 그랬고, 안철수가 그랬고, 고건이 그랬다.(앞으로 안철수씨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지켜볼 일. 대중을 선도하려고 하지 과거처럼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지 않음.) 성경에 보면 헤롯이 인기에

영합 했다. 그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통해서 통치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여우’라고 불렀다. 간교한 정치인이라는 뜻이다.

31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눅 13:31-32)

항상 그렇듯, 정치는 늑대들의 싸움터이다. 그래도 통치자는 정치인들을 초월하는 권세와 위세를 지니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한결같이 측근들이 저지르는 내로남불 행태와 경제적 갑질 때문에는 국민들의 마음은 분노가 가득하다. 여우짓은 그래도 그럴듯하기라도 하지만, 현 정부는 웬일인지 뻔뻔하고 양아치스럽다. (며칠전 서울시는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는데, 이는 815집회때 생긴 감염증이 숨어있다가 갑자기 소모임 중심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해명.)

오죽했으면 전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이용되었던 검사가 현 정권을 향해서 대드는 형국이니 누가 봐도 ‘토사구팽’각이 예상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키려고 애를 썼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당연히 정치적 출세가 다음 순서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 전혀 정치적이기 않았다. 마태는 이를 ‘권위있는 가르침’이라고 판단하였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외식, 다른말로 위선에 대한 말씀이다. (외식은 외면 바깥 장식, 위선은 거짓 선-착한척, 겉만 그럴듯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자신도 똑 같으면서 비판하지 말라,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은 그렇지 않은 듯 상대를 비난하지 말라. 너도 똑같은 놈이면서’라는 뜻이다.

-올법주의란 올법이라는 그럴듯한 선한 법이나 일을 선정해 놓고, 그 선한 이미지를 자신과 동일시 하면서 법을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는 자들의 주장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올법주의가 가장 심한 곳은 아마도 여야 정치권, 사법부, 검사, 청와대 비서실장들. 제일 말 많고 뭔가 하는 듯 한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곳. 차라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나라에 도움이 될 듯. (그런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 더 나라를 어지럽힐 것 같음.)

-다음 정부는 바로 잡기만 해도 인기 상승일 듯.

-올법주의의 피해가 재난보다 더 심한 유일한 정부인 듯.

-6절 말씀이 지혜의 말씀.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정권은 하나님의 것. 과거에는 왕권 신수설도 있었다.

-그만큼 정권이란 소중한 것.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도 쉽게 정권을 함부로 검증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 버린 것. 올법주의를 이용한 그럴듯한 위선자들에게 빼앗김. 이제 그들은 민주주의를 발로 밟고 돌이켜 국민들을 찢어 상하게 하고 있음.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민주주의가 결코 투표권 하나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과거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치렀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정치체제이지만, 얼마든지 선거 조작을 통해서 악한 자에게 정권을 빼앗길 수 있고, 외식하는 올법주의자들에게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말 잘하고, 비판 잘하고,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고, 그럴듯한 환상을 파는 자들은 외식하는 여우들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단순히 다른 사람, 상대방, 어느 누구든지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정치인, 왕 할 것 없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까지 독설을 하신 것은 무엇인가?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도 거짓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외식이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닌 척하는 것이 외식이다. 스스로도 죄인인 것을 깨우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다. 만약 그가 회개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인정받고 기도 잘하는 척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전도 열심히 하는 척, 찬양 열심히 부르는 척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도 그러는 척 하면 그것도 외식이다.

-회개하는 척 하면 외식. 그러나 회개 때문에 삭개오처럼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진짜 회개.(그나마 삭개오는 배상해 줄 수 있는 재산이라도 있어서 다행.) 회개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 적어도 책임 질 수 없다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빌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하다못해 아합처럼 겸손하게 걸어다니면 하나님께 매를 덜 맞는다.

회개는 가짜가 되는 순간 외식이 된다. 비판 해 놓고 자기도 그 짓을 하면 외식이 된다. 자기도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외식이지만.

-권위있는 가르침의 진짜 의미는 그러므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크리스찬은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이어받아 살아가는 자들임.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리더의 즐거운 공부생활

성경: 전도서 12장 8-14절

Tag:

8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9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10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12 내 아들이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12:8-14)

8절은 후렴구. 영생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11절 공부의 유익.

-찌르는 채찍. 한번 배운 공부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뇌속에 남아 힘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됨.

-찌르는 채찍은 말의 힘을 영똥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케 함. 말은 자신이 가게 될 방향으로 고개를 틀어 그쪽으로 방향을 잡음. 옆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부가 재갈물린 고삐를 잡고 틀면 자연히 고개가 젓히게 되고 말은 방향을 틀게 된다.

-사람은 공부를 통해 말의 힘을 사용함.

-운전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공부가 그럼.

- 항상 기술과 요령이 발전하게 됨. 언어와 사고체계가 정해짐.
- 철학은 생각하는 논리를 발전시키게 됨.
- AI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 질문들을 정리한 것임. 결코 창조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함.
- AI는 인류에게 쓸데없는 사고노동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창조적인 것에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동장치임. 그 자체가 사고나 창의적인 행위를 하는게 아님. 결코 기계인간에 위축되지 말고 그것을 현명하게 이용하려고 하라. AI를 나의 애마로 삼으라.
- 어르신들이 가장 정보 취약계층. 그나마 유튜브가 많이 도와주고 있음. 유튜브의 단점은 시간충이라는 점. 다행히 플레이 속도 조절됨. 건너뛴 수 있어서 설교보다 나옴. (설교란 창의적 계시를 따끈 따끈하게 얻을 수 있게 함. 성령의 감화력으로 내 뇌리에 새기는 것-잘 박힌 못과 같음.)
- 잘 박힌 못; 잘 못 박힌 못도 있음. 습관을 말함. 한번 익힌 습관은 다시 익힐 필요 없고 편리함.
- 나쁜 습관은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쉽다.
- 벤자민 프랭클린 -
-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라 -김덕윤- ‘마치 갤럭시 9 보다 갤럭시 20이 더 좋은 것처럼’

12 내 아들이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세바시;정재찬(한양대 사범대 교수)‘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더 낫다.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행운, 그렇게 많지는 않다.
- 남은 인생 꽃길만 걸어요. (남이 곱게 만들어 놓은 꽃을 짓밟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근데 이것은 궤변. 꽃길이란 남이 내가 가는 길을 닦아 놓은 길이라는 뜻. 꽃은 길 가에 피어 있을 뿐. 내가 행복하도록.)

-내가 널 꽃길만 걷게 할 께. 난 이미 꽃길 만들어 두었는데 나 혼자 가기 싫고 너랑만 같이 걷고 싶어. 같이 갈래?

-공부란 내가 만들어 놓은 길,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걷도록 하기 위한 노력.

-사업이란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통행료를 거두는 행위.

-투자란 통행료를 거두어 다른 길을 만드는 행위.

-경쟁이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경쟁에서 진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가장 좋은 길을 만들었다는데 방점을 찍으라. 결국 나는 그 많은 길들을 나도 걷고 있지 않는가?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죽은 시인의 사회(시인 동아리);키팅 선생.(로빈 윌리엄스)

-시와 아름다움, 낭만 그리고 사랑은 삶의 목적이야. 카르페 디엠.

-시와 아름다움, 낭만 그리고 사랑은 덤이야. 의술, 법률, 사업, 기술 등의 목적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을 사적 욕심과 접목시키는 것이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장점은 개인적 욕심이라는 동력을 공동체의 유익으로 되돌려 받게 하는 장치. 그러면 시와 낭만이 모두의 덤이 됨.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들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문정희<나무학교>

-연애 맨트. 나무와 같은 분이시네요. 어머 나무처럼 나이를 속에다 새기셨나봐요. 같이 이렇게 싱싱한 초록색이니 몰라봤습니다.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13, 14절이 없었더라면 성경에 들어올 수 없었으리라.

일과 공부가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공부나 일에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